

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

야권 단독 전체회의 소집 국힘 "일방 상정" 반발 불발 심우정 인사청문 보고서 논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야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4일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집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정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회로 온 연금개혁 '힘로 예고'

여 "미래 위한 빅스텝"...야 "국민 부담 올리고 연금 깎겠다는 것"

정부가 4일 보험료를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 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면서 "연금 수입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출범시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며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장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안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내일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민주당 '文 수사 대응' 대책위 설치... 24일 금투세 유예 당내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여야는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동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구 명칭은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로 정했다. 여야 공동공약 리스트와 협의회 참여 인사 등 세부 계획도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의 후기와

자들과 만나 "금요일(6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공동공약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와 관련한 당내 토론회를 오는 24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은 '금투세 완화' 찬성팀과 반대팀이 대결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에는 의원 2~3명이 배치되며, 토론은 전체 생중계된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영진 의원이 맡는다. 감용만 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도 당내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정부,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 해결해야"

공사비 문제로 입찰이 5회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의 전제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유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당초 정부가 광주시 요구안보다 총사업비를 대폭 감액시킨 결과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5회나 유찰되었다"며 "작년 예산 1847억원을 한 푼도 못 쓴 책임은 결국 총사업비 책정을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조치하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기재부 협의사항인 총사업비 증액 등 현안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복합소풍물에 대해서도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2호선 지선과 BRT 등 교통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아울러 2호선 지선에 소요되는 국비 60% (지방비 40%) 예산에 국토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박균택 "檢 무분별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금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000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7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



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